



용아 박용철 ‘당신의 뜻’ 잇습니다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짧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거나/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 향군들 손집게야 버틸거나/ 안개 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뭇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짧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거나/ 나 두 야 간다”(용아 박용철 ‘떠나가는 배’)

시인 용아(龍兒) 박용철(1904~1938) 선생 추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다형(茶形) 김현승(1913~1975) 선생과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시인인 용아 선생은 한국 시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영랑과 함께 ‘시문학’을 창간하면서 김영랑, 정지용, 신석경, 이하윤 등과 순수시를 대표하는 시문학파로 불렸다.

“떠나가는 배” “비 내리는 밤” “씨늘한 이마” 등 대표작을 남겼고, ‘시적변용에 대해서’를 발표하면서 자신의 시론을 확립하는 등 한국 현대문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하지만 그동안 용아 선생 추모사업은 지지부진했다. 29일 광주 광산문화원에 따르면 ‘2013

용아문학제’를 여는 등 그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은 용아 선생 탄생 110주년이 되는 해다.

용아기념사업회 설립과 용아 문학촌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빛고을문화관 건립과 맞물려 진행되는 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산문화원은 다음달 1~2일 광주시

등학생 및 일반이 대상이며 오는 31일까지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 중 일부는 용아 생가 주변 골목에 벽화로 새길 예정이다.

행사 기간 용아 생가에는 ‘2013 용아 청소년 만화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되고, 특설무대에서는 ‘용아 퀴즈왕 선발 대회’가 열린다. 또 문병란, 김준태, 문순태 작가가 함께 하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예정돼 있다.



‘용아 문학제’를 시작으로 시인 용아 박용철 선생 추모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용아 선생 생가. <광산문화원 제공>

7월 기념사업회 꾸러 문학관 등 건립 추진

용아 문학촌, 빛고을문화관과 콘텐츠 등 협의 필요

6월 1~2일 백일장·작가와의 대화 등 문학제 행사

광산구 소촌동 용아 생가 일원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를 주제로 ‘2013 용아문학제’를 연다. 그동안 열렸던 용아 전국 백일장 대회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는 행사로 확대했다.

1일 오전에는 정광중·고등학교에서 ‘제22회 용아 박용철 전국 백일장’ 행사를 개최한다. 대상 1명에게는 상금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장원 1명에게는 상금과 광주시장상이 수여된다. 전국 초·중·고

광산구 작은도서관 연합회를 중심으로 꾸려진 탐방단은 참가자들에게 용아 선생의 문학세계와 삶을 들려준다. 이 밖에 북아트전, 캐리커처그리기, 캘리그래피, 목공예 등 체험행사가 마련됐다.

광산구문화원은 오는 7월에는 (사)용아기념사업회(가칭)을 설립하게 된다. 초대 회장은 재경 광주시향우회장인 박완철씨가 맡는다. 사업회가 꾸러지면 용아 생가 주변 문

학촌 건립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문학촌에는 용아 선생 관련 자료 등을 전시하는 문학관을 만들고, 생가 일대를 문학의 거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문학의 거리에 용아 선생 활동 사진이 걸리고, 시민과 작가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에서도 문학촌 조성 관련 을 하반기 생가 주변 일부를 매입해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업회는

다양한 기념 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으로 용아 문학상도 제정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빛고을문화관 부지가 결정되는 등 건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아 문학촌 건립 추진 계획이나 내린 자금 콘텐츠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용아 선생 관련 콘텐츠가 양적으로 분산되면 문학관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한곳으로 치우칠 경우 다른 한쪽은 빈 껍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빛고을문화관과 용아 문학촌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추진과정에서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이현선 광산문화원장은 “용아 선생 생가는 상징적인 장소로 문학촌은 지난 2002년부터 논의돼 왔던 문제”라며 “기념비적 성격이 강한 콘텐츠들로 문학촌을 꾸밀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인기자 kki@kwangju.co.kr

“도립국악단 브랜드 공연 개발”

전남문화재단, 출범 4주년~6대 전략 수립

전남문화예술재단은 29일 재단 출범 4주년을 맞아 ‘전남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행복 문화발전소’를 비전으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재단은 우선 도립국악단 대표 브랜드공연 개발 및 남도예술은행 활성화, 문화재단연구소 운영을 통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을 특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예술인 컨설턴트 지원, 문화 예술사카데미 운영, 문화예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와함께 문화복지 확충, 문화예술교육 체계 확립, 재단 조직 역량 강화 등 6대 전략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지역 문화계 소식을 담은 소식지 ‘문화랑’ 창간호도 6월

말 발간될 예정이다. 2009년 5월 29일 출범한 전남문화재단은 지난 4년간 전남도립국악단 토요공연과 남도예술은행 토요그림경매를 지역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켰으며, ‘관쾌라 이순신’, ‘인동초처럼 살리라’ 등 브랜드 공연을 개발해 전국 대중화를 선도하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명원 재단 사무처장은 “그동안 재단의 정체성 확립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면 이제는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지역의 풍부한 자연과 문화를 활용해 전남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스웨덴 작가 스트린드베리를 만나다

극단 허방 ‘줄리아씨’ 6월1일까지 예술극장 통

지역에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스웨덴 극작가의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극단 허방(대표 김영학)은 입센과 함께 근대 연극의 기초를 닦은 작가로 평가받는 스웨덴 작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작품 ‘줄리아씨’를 공연한다. 30일~6월1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3시~6시 예술극장 통. 백작의 딸인 줄리아는 하인 장과 춤추며

어울리다 뜨거운 관계를 맺게된다. 그동안 충직한 하인이었던 장은 그날 이후 돌변, 줄리아를 함부로 대하고 둘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번지기 시작한다.

극단 대표 김영학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나윤정씨가 주인공 줄리아역으로 출연한다. 이현, 박경단씨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문의 018-642-9263.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모차르트 ‘마술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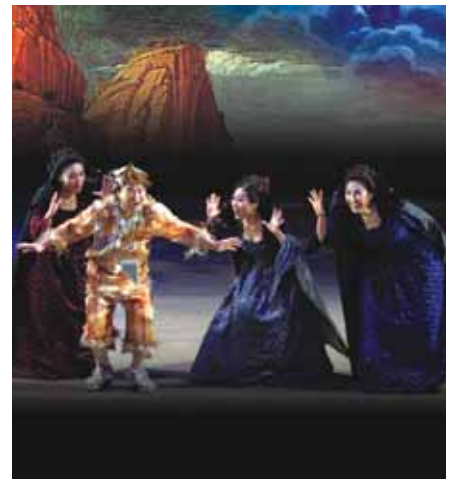
빛소리 오페라단 내일 나주문예회관

(사)빛소리 오페라단(예술감독 최덕식 광주대 교수)이 모차르트 ‘마술피리’를 무대에 올린다. 31일 오후 4시~7시30분 나주문예회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선정 사업으로 진행된 이날 이날 공연에서는 주요 배역을 맡은 성악가들과 아르스필하모니오케스트라, 광주대 합창단 등 모두 100여명이 출연한다.

파니마 역에 유형민, 타미노역에 이원웅씨가 출연하며 김기보·강승희·박수진·유준상·김승지·이윤정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연출은 박미애(광주대 교수)씨가 맡았으며 지휘는 이일구, 합창지휘는 구천서다. 1999년 창단한 (사)빛소리오페라단은 지금까지 ‘라 보엠’, ‘사랑의 묘약’ 등 클래식 작품과 함께 ‘무등 동동’, ‘한국에서 온 편지’, ‘장화홍루’ ‘꽃 지어 꽃 피고’ 등 다양한 창작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다. 전석 1만원. 문의 062-227-7442.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 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